

인간 vs 車 70m 경주...오늘 2시 50분 영암서



4일 오후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6 모터·레저 스포츠 한마당 스페셜 이벤트 '인간 vs 자동차 대결 공식 기자회견'에서 육상선수 김국영(왼쪽)과 카레이서 권봉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지막 10m’ 승패 가른다

김국영 “스타트 유리...차 속도 내기 전 격차 벌일 것”

5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리는 김국영과 자동차의 70m 경주는 ‘마지막 10m’가 승패를 가를 전망이다.

구분	김국영 (100m 한국기록 보유자)	아반떼 (운전자 권봉이)
7초40	70m 기록	7초38
스타트 자세	출발전	시동 걸고 기어 P 대기
육상용 트랙	트랙	핸들·기어에서 손 떼야
스타트·전반 60m	장점	후반 10m 스피드

김국영은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6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스페셜 이벤트인 인간 vs 자동차 대결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와 사람의 달리기 대결은 한국에서는 처음”이라며 “스타트에서는 내가 유리하다.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 100m 한국기록(10초16)을 보유한 김국영은 5일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자동차(현대자동차 아반떼 2013년형)와 70m 달리기 승부를 가린다. 김국영과 승부를 펼칠 차의 운전자는 프로 카레이서 권봉이(29·서한퍼플모터스포츠 레이싱팀)다. 권봉이는 자동차 시동을 건 상태로 기어를 P(주차)에 놓고 대기한다.

카레이서 권봉이는 “한국에서 가장 빠른 김국영 선수와 대결하게 돼 기쁘다. 인간이 이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대결에 나서다 보니 이번에는 자동차가 이겼으면 좋겠다”며 “실수가 없다면 당연히 차가 이길 것이다”라고 의욕을 보였다.

김국영의 70m 기록은 7초4다. 자동차의 70m 구간 기록은 7초38로 알려졌다. 최고 기록에서 0.02초 차이가 있지만, 당일 상황에 따라 승부가 뒤바뀔 수 있다. 김국영과 권봉이 모두 ‘스타트’를 승부의 관건으로 꼽았다.

김국영은 “자동차가 제 속도를 내기 전까지 격차를 벌여야 한다”고 전략을 밝혔고 권봉이도 “스타트에서 약점이 있지만 그 부분을 잘 해결하고 조차에 실수가 없다면 자동차가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회를 주최한 전남개발공사 KIC사업소 김대준 소장은 “2016 모터·레저스포츠 한마당 행사의 스타팅 이벤트로 마련한 행사”라며 “오는 14일까지 열리는 한마당 행사에는 이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하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미 동맹·核 ‘극과 극’...보호무역역 ‘비슷’

美 대선 첫 번째 대결 힐러리-트럼프 공약·인물 비교

올 가을 미국 대선 본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맞대결하는 시나리오가 구체화했다. 미국 대선사상 처음으로 남녀 간 성대결이 치러지게 된 것이다. 두 주자는 특히 성별만큼이나 너무나 대조적인 ‘극과 극’의 면면을 보이고 있다. ‘인권변호사’와 ‘부동산 재벌’이라는 출신 배경에서부터 ‘주류’와 ‘아웃사이더’라는 정치적 위상, ‘흑인 진보층’과 ‘백인 보수층’이라는 지지기반, ‘개입주의’와 ‘고립주의’에 기반한 세계관에 이르기까지 극명한 차별성을 보인다. 이 같은 대조적 면면은 집권 이후 국정청사진을 담은 공약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한·미관계와 한반도현안에 대한 정책방향은 놓고는 완전히 상반된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지근거리에서 조인하는 참모그룹도 ‘리프’가 서로 다르다. 두 주자의 공약이 극단으로 갈리는데에는 경선과정에서 그만큼 치열했던 영향도 크다. 클린턴은 당내 진보층을 겨냥해 더 ‘왼쪽’으로, 트럼프는 보수층을 의식해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힐러리 “북한, 협상의 장 이끌어야”
트럼프 “동맹국 부담 더 늘어나야”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vs “동맹국이 더 돈내야” = 두 주자의 국정운영 철학이 가장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바로 외교안보 정책이다. 동맹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를 놓고 클린턴과 트럼프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 개입주의자인 클린턴은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확대해나간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반해, 트럼프는 현재의 동맹이 ‘불공정한 책임부담’ 구조라고 강조하면서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하는 쪽으로 동맹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953년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63년간 유지돼온 한·미동맹의 가치와 역할을 놓고 두 후보의 시각이 대조적이다.

국무장관 출신으로 한·미관계와 북한 문제를 직접 다뤘던 클린턴은 지난해 8월 23일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북한 포격도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은 미국이 동맹국 방어를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준다”며 동맹 간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시각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은 재정적·정치적·인적 비용과 관련해 적절한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이 적절한 몫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들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확산체제 유지” vs “한·일 핵무장 허용”도 시사 = 미국이 주도하는 비확산 체제를 놓고 두 후보의 시각이 확연히 갈린다. 클린턴은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트럼프는 상황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클린턴은 Barack Obama 행정부 초대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 이니셔티브를 추구하고 이란 핵협상을 시작하는 등 비확산 노력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클린턴의 외교책사인 웬디 셔먼 전 미국 국무부 정부차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에 나서면 시나리오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트럼프는 그동안 언론과의 인터뷰 계기에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란 핵협상이 모델” vs “김정은은 미치광이” = 북한 핵문제를 놓고 두 주자 모두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접근 자세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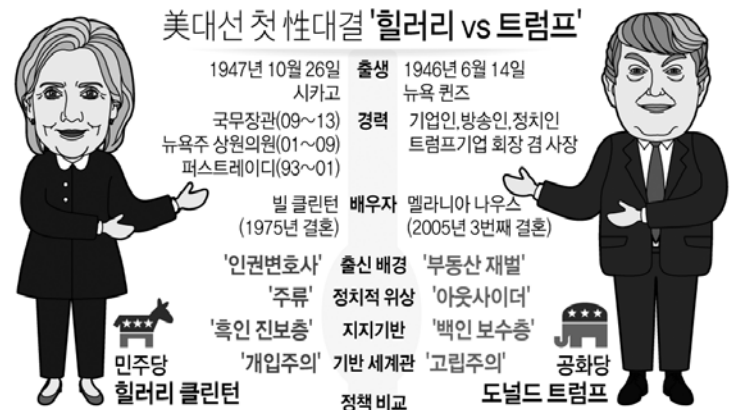
클린턴은 가능한 제재와 압수수단을 총동원해 북한을 이란처럼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트럼프는 북한 자체를 직접 상충하지 못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고립 또는 봉쇄해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한미 FTA 지지·재협상 ‘입장차’

클린턴은 지난해 6월 펴낸 회고록 ‘힘든 선택’에서 “북한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완전히 핵무기를 제거하는 경우 관계정상화와 경제적·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고립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클린턴은 집권 직후부터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은 지난 1월 6일 성명에서 “대외 원(원칙) 첫날부터 위험한 북한을 다루는 수 있는 경험과 판단을 지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을 국방위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에 비유하면서 지난 2월 포क्स비즈니스 방송에 나와 “중국 만이 김정은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미 FTA 지지 vs ‘재협상’ 시사 = 현재 미국 내에서 반(反) 무역정서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을 놓고는 두 주자 모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발효된 양자 무역협정을 놓고는 클린턴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지만 트럼프는 이를 재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캠프의 최장 격인 제프 세션스(엘라바) 상원의원은 지난달 25일 상원 전체회의에서 2012년 발효된 한·미 FTA가 미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힐러리 클린턴	도널드 트럼프
출생: 1947년 10월 26일 시카고	출생: 1946년 6월 14일 뉴욕 퀸즈
경력: 국무장관(09~13) 뉴욕주 상원의원(01~09) 퍼스트레이디(93~01)	경력: 기업인, 방송인, 정치인, 트럼프기업 회장 겸 사장
배우자: 빌 클린턴 (1975년 결혼)	배우자: 멜라니아 트럼프 (2005년 3번째 결혼)
정치적 위상: '주류'	정치적 위상: '아웃사이더'
지지기반: '흑인 진보층'	지지기반: '백인 보수층'
기본 세계관: '개입주의'	기본 세계관: '고립주의'
정책 비교: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파트너십 강화에 초점. 지난해 8월 23일 CNN과의 인터뷰 당시 북한 포격도발 사건을 거론하며 '이번 사건은 미국이 동맹국 방어를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할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준다'며 동맹 간의 긴밀한 공조 강조	정책 비교: 현재 동맹이 '불공정한 책임부담' 구조임을 강조. 동맹국이 더 많은 부담을 하는 쪽으로 동맹의 관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제대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시각
비확산 체제: 더 이상 핵무기 개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비확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비확산 체제: 상황에 따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
북한 핵문제: 가능한 제재와 압수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이란처럼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초점	북한 핵문제: 북한 자체를 직접 상충하지 못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을 통해 북한을 고립 또는 봉쇄해야 한다는 시각
경제 정책: '중신용 북한' 내세우며 부자층과 투기자본과 불로소득에 확실한 과세를 하겠다는 입장. 부자층세: 20% 인상, 100만 달러 넘는 경우 최소 30% 세율을 부과, 연소득 500만 달러 넘는 경우 4% 할증 과세하는 방안	경제 정책: 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방안. 소득 최상위 계층의 세율을 39.6%에서 25%로 대폭 낮춤. 개인소득 2만 달러, 부부합산 5만 달러의 저소득층에게는 연방 소득세를 모두 면제, 상속세와 법인세 각각 폐지나 감축 입장
자유 무역 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북미 자유무역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 이미 발효된 양자 무역협정은 지지한다는 입장	자유 무역 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 하고 재협상할 수 있음을 시사
이민자 정책: 이민 100일 내에 이민개혁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 (1,100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는 내용)	이민자 정책: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테러와 범죄 발생,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주류 백인들의 편견에 부응해 반 이민정책. 멕시코 불법이민자를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겠다고 공언
참고 그룹: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활약했던 인물들. 최장: 존 포드, 데이비드 백악관 선임고문. 외교안보팀 수장: 최후근인 제이코 셸리먼. 외교안보팀: 빌 클린턴 전 국무부 부장관 (현 케네디국제정책연구소 회장). (한·미) 자유무역협정 연구원	참고 그룹: 주류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 활약. 외교안보팀 수장: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외교안보팀: 힐러리 파레스 미국 국방부 고위 외교안보 고문. 카리드 피에지 글로벌에너지개발팀장. 벤 가스 침묵 출신의 조지 퍼피드 블로흐스 하드슨연구소 에너지전문 분석가

미 대선 남은 일정

- 코커스(당원대회)-프리미어(예비선거)
- ★ 2월 1일~6일 14일 후보지명 위한 전당대회에 나갈 주(州)별 대의원 선출

전당대회 - 공식 후보 지명

- ★ 7월 18~21일 공화당 클리블랜드, 오하이오주
- ★ 7월 25~28일 민주당 필라델피아, 펜실베이니아주

대통령 후보 대선 토론

- ★ 9월 26일: 첫 대선 후보 토론회 (오하이오 데이튼, 라이트주립대)
- ★ 10월 4일: 부통령 후보 토론 (버지니아 팜블, 동우대)
- ★ 9월: 대선 후보 2차 토론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
- ★ 19일: 대선 후보 3차 토론 (라스베이거스, 네바다대학)

★ 11월 8일 대통령 선거일 (선거인단 선출로 당선인 확정)

형식상 선거인단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 형태로 유권자들이 특정 후보에 지지를 표명한 선거인단을 선출

선거인단의 수는 총 538명. 미국 하원의원 435명+상원의원 100명+워싱턴 D.C. 선거인단 3명. 과반인 270명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승리

*50개 주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인단 수가 다르며,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으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조리 차지(승자독식 제도)

- ★ 12월 19일 선거인단 대통령 선출
- ★ 1월 20일 대통령 취임

광신대학교 대학원 2016학년도 <후기> 신입생 모집안내

전형일정

- ① 원서 접수 : 2016. 5. 30(월) ~ 6. 8(수)
- ② 전형일 : 2016. 6. 10(금)
- ③ 합격자 발표 : 2016. 6. 14(화)
- ④ 등록기간 : 2016. 6. 14(화) ~ 15(수)

※ 참고사항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필기시험 해당학과 : 신학과(Th.M.), 신학과(M.Div.) - 실기시험 : 실용음악학과(M.A.)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학위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입학문의 ▶ 062) 605-1115, 1024, 1021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최소식 유한바이오 클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01 식후 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가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

문의 HP 010-3598-7080/1899-3975

말하는 법 1%만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www.kleader.kr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스피치교실

"내가 말을 잘하면 내 자식도 말을 잘한다"

아버지 스피치 교실

초·중·고·대학생 등을 위한 **학생부 스피치 교육**

스피치 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된다면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바뀐다고 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스피치~! **직장인 스피치**

면접 준비 없이 나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합니다. 본원에서는 기업체·금융사·임용고시·경합직 등등 취업을 목적으로 한 면접준비 실전과정을 통하여 취업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각 분야별 강사 파견 : 강사가 필요한 곳에 강사를 파견해드립니다.

☎ 062) 222-2255,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